

# 강원 발주청 신기술·특허공법 과다 적용... 건설업계 '시름'

강원 발주청이 시행하는 시설회사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이 자주 적용되자 강원도 건설업계와 분쟁을 빚는 등 골살을 앓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강원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제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올렸다.

현재 강원도는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 신기술 우선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신기술 우선 사용이 과다 적용되는 공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강원도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우선 단일공사에 여러 개의 신기술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술 보유자들이 단순 기술자문 또는 신기술 자체납품에 국한하지 않고 신기술 연관공사까지 포함된 실제 시공참여를 위해 원도급자와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기술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점도 갈등 요인 중 하나다. 사용료란 신기술 부분을

단일 공사에 여러개 신기술

무분별하게 적용뿐 아니라

연관 공사 시공참여까지 요구

원도급자와 '주객전도' 되기도

기술자 사용료 협약도 불투명

지역업계 "부담 가중" 아우성

별도의 공법 가이드라인 시급

직접 시공함에 따라서 지급되는 요금을 의미한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가 관련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사용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협 강원도회에선 원주청을 비롯한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 신기술 공법의 지나친 적용을 지양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법

의 효율성에서 일반 공법과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은 검증된 일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제주도에선 별도 기준을 수립해 신기술, 특허공법 공사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제주도의 신기술, 특허공법 공사 제한요령에 따르면 신기술 보유자의 공사 참여를 실질제한, 기술 보유상황, 재무상태, 납품능력 등 다각도로 제한하고 있다. 기술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 방법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공사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선 기술 개발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술 개발자는 별도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공사에서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적용할 때는 적용사유를 공개하고 선정과정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왼쪽 세 번째)이 허필홍 흥천 군수(왼쪽 네 번째)에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 건협 강원도회, '스킨십 행보' 눈길

### 이웃돕기 성금 기탁부터 회원사 맞춤형 교육 강화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가 도내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연말 도내 지역 민들을 위한 각종 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거나 도내 건설업체 소속 직원들을 위한 법정 교육을 마련하는 등 회원사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 4일 횡성군에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인철 도회 회장은 횡성군을 찾아 지역 회원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달 말에도 강원도 흥천군 소속 회원들과 함께 허필홍 흥천군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건협 강원도회는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도내 건설업체의 업무 편의를 위해 법정 교육도 마련했다. 건협 강원도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원주를 시작으로 건설업체 품질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



강원도지역 건설기술자들이 품질관리자 법정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맞는 건설 기술자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도내에 교육기관이 없어 서울 등 원거리 교육을 이수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건협 강원도회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교육기관인 (재)건설산업교육원과 강원지역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주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강릉, 2월엔 춘천 등 3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협 강원도회 관계자는 “품질관리자 직무교육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시공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건설업체의 업무 편의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